

AUTHOR 신복윤 (Bock Eyun Shin)

TITLE 칼빈이 본 인간(1)
(Calvin on Man (1))

IN 신학정론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vol.14 no.1 (May, 1996):161-173

증하신다.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거룩함'이 없는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그 믿음이 성숙(mature)하여 지지 않는 상태는 참된 믿음, 곧 산 믿음¹⁰⁵⁾이 아니다. 산 믿음, 구원을 성취시키는 믿음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눈에 보이는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며 거룩함 중에 믿음의 성장이 계속되는 것이다.¹⁰⁶⁾

'거룩함'은 성령님의 역사며 거룩하게 된 표시, 곧 믿음의 성숙함이 없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며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까닭이다. 비록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숙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성도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수준(the standard)에 만족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논의는 무의미한 것이다.

끝으로, 가정적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만일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태가 완전한(perfect) 생활이라면 완전한 것의 차이를 논하는 것이 자기 모순(self-contradiction)은 아닐까'¹⁰⁷⁾ 염려스럽다는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 상급의 정도의 차이, 곧 성도의 공로에 근거한 상급의 차이에 대한 사상은 이미 배제된다(preclude).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봉사와 수고와 공헌과 순종에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entitled). 우리의 모든 봉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실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더 수고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는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인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요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 할지니라"(눅17:10).

105) 고전 3:3; 히 6:1-8; 약 2:14-26.

106) 마 7:15-27; 갈 5:6; 19:24; 요일 3:4-10.

107) C.L. Blomberg, op. cit.

칼빈이 본 인간(1)

신 복 윤

〈조직신학, 교수〉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논하고, 제2권에서는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설명한다. 그러나 그는 救贖의 대 주제를 말하기에 앞서 먼저 인간의 죄의 성질과 그 범위에 대하여 논한다. 칼빈이 이렇게 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는 이사야 53:6 주석에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절망적인 비참함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치유가 필요한지 알지 못하며, 또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에게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를 알기 위하여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변호로 의인의 확증을 받을 때까지 자신이 정죄 하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무도 여기서 제외될 사람은 없다. 선지자는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만일 그리스도가 도움을 가져

오지 않으셨다면 온 인류는 파멸되었을 것이다.”¹⁾

이처럼 완고하고 부패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때에만 우리는 구원의 유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칼빈은 일반적으로 철저한 비관적 인간관의 주창자로 생각되고 있다. 분명히 칼빈은 여러 곳에서 그러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칼빈은 인간을 “겨우 5척밖에 안되는 버러지”²⁾ 라고 묘사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병적으로 자기를 혐오하는 우울한 염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과학, 의학, 문학, 예술, 그리고 다른 학문분야들을 매우 소중히 여겼던 인물이었다. 인간은 비록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하나님은 주신 은사들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칼빈은 주장했던 것이다.³⁾

이제부터 우리는 칼빈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았는가 하는 점을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구속적 성질, 범죄한 인간, 그리고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인간에 대한 고찰 등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창조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적인 지위를 받았다. 하나님은 그를 동물처럼 지상에서 사는 단순한 거주자가 아닌, 죽은 후에도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내세의 삶을 살 것을 허락하셨다.

이외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

1) Calvin, *Commentaries*, p.154

2) Calvin, *Institutes*, I.5.4. cf. David Cairns, *The Image of God in Man*, p.139.

3) *Inst.* II.2.15

(image)과 모양(likeness)으로 창조하셨다(창1:26,27). 칼빈은 로마 교회가 전통적으로 주장해오던 “형상”과 “모양”의 구별을 거절하고 이 명사들이 동의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실 모양이라는 말은 설명을 위해서 첨가된 것일 뿐, 두 말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말을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어서 그들은 한 가지 일을 두 번 연거푸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⁴⁾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 표현이 모호했던 까닭에 설명을 위해서 “모양대로”라는 말을 추가하여 동일한 관념을 반복하셨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피조물을 능가하는 인간성 전체의 탁월성에까지 미친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의 영혼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형상이라 불리워진다는 점을 칼빈은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그러므로 영혼이 인간의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을 영혼과 관련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부르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⁵⁾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과 함께 육체를 포함한다고 한 오시안더(Andreas Osiander, 1498-1552)의 주장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외부적 특성에서 보여지고, 또 변쩍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영적이라는 것을 확고한 원리로 삼아야 한다.”⁶⁾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당연히 인간의 내부에서 찾아야 하며 밖에서 찾아서는 안된다. 실로 그것은 영혼의 내적 善인 것이다.”라고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칼빈이 이와 상반되는 듯한 주장을 하여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하고 있는 주요 좌소가 가슴과 마음, 혹은 영혼과 그 능력에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어느 부분에도, 심지어는 육체 자

4) *Inst.* I.15.3: *Com.* Genesis 1:26

5) *Inst.* I.15.3

6) *Ibid.*

7) *Inst.* I.15.4

체에도 그 광채의 얼마가 빛나지 않은 곳은 없다. 확실히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흔적들은 세계 도처에서 빛나고 있는 것이다.”⁸⁾ 라고 주장하였다. 이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육체도 포함한다고 칼빈이 주장한 것으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칼빈은 영혼과 육체를 다 포함한다고 한 오시안더의 주장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까지나 영적이며 인간의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칼빈의 의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으로 다른 모든 피조물 이상으로 월등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최근에 개혁파 신학자들 중에는, 열등한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이 인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칼빈은 이를 반대한다. 칼빈은 창세기 1:26-28의 지배권 위임의 중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 지배권이 부여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지배권이 하나님의 형상과 동일시되어서는 안된다고 칼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님의 모양이 인간에게 주어진 지배권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견해도 개연성이 없다.”⁹⁾ 칼빈의 주장을 다시 반복한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당연히 인간의 내부에서 찾아야 하며 밖에서 찾아서는 안된다”¹⁰⁾

개혁파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두 가지로, 즉 윤리적 형상과 형이상학적 형상으로 나누어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형상과 포괄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분하여 생각한다.

칼빈이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한 것이 「기독교 강요」에서 분명히 나타난

다.¹¹⁾ 전자는 ‘참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되어 있다. 칼빈은 이 사실을 성경을 인용하여 증명한다.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골3:10)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엡4:24). 이 말씀에서 바울은 “첫째로는 지식을 말하며, 둘째로는 순결한 의와 거룩함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²⁾ 윤리적 형상, 즉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이처럼 참 지식, 의, 거룩함으로 되어 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처음에는 “지성의 빛과 마음의 바름과 모든 부분의 건전함에서 뚜렷이 빛나고 있었다.”¹³⁾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이 부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어,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어떠한 면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되었다. 인간은 지금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다. 이 윤리적 하나님의 형상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에 의해서만 인간에게서 회복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구원의 회복의 시초이다”¹⁴⁾

이 하나님의 형상은 “지금 부분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피뻘자들에게만 보게 된다”고 칼빈은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광채를 발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그 형상과 같게 될 때, 우리는 그와 같이 회복되어 참된 경건, 의, 순결, 지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된다.

칼빈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의지의 자유, 즉 자유로운 도덕적 기능과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 즉 의를 소유하였다는 어거스틴의 사상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완전한 상태에서 인간은 자

8) *Inst.* I.15.3

9) *Inst.* I.15.4: Com. *Genesis* 1:26-28

10) *Inst.* I.15.4

11) *Inst.* I.15.3.4; II.2.3.15

12) *Inst.* I.15.4

13) *Inst.* I.15.4

14) *Ibid.*

기가 원하기만 하였더라면 자유의지로 영생에 도달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¹⁵⁾

그러나 타락 후의 아담은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아담은 비록 자신의 자유로운 도덕적 기능을 그대로 보존하였으나 그 윤리적 형상은 지금 전적으로 부패하여 인간의 모든 욕망은 계속 악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¹⁶⁾

‘형이상학적 형상’, 즉 포괄적 의미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이성적이며 영적이고, 불멸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이 부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손상되었으나 전적으로 근절되지는 않았다. 이 형상이 손상은 되었으나 기본적으로는 본래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불신자들도 법률, 의학, 철학, 수학, 그 밖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탁월함을 성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이 그 진정한 선을 빼앗긴 후에도 주께서는 많은 선물을 인간성안에 남겨 두셨다는 것을 그들의 예를 보아서 깨달아야 한다.”¹⁷⁾ 인간의 학술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의 지성은 비록 그 완전 상태에서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훌륭한 능력을 아름다운 옷과 같이 입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¹⁸⁾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어떠한 진리도 거부하거나 멸시해서는 안된다.

만일 멸시한다면 우리는 그 궁극적 원천이신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며, 하나님께 배은망덕하는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연과학과 논리학과 수학과 그 밖의 학술의 도움을 받으며 불신자들의 활동과 봉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15) *Inst.* I. 15. 8

16) *Com. Genesis* 3:1ff: 6:5; *Inst.* I. 2.26, 27

17) *Inst.* II. 2.15.; Brian Gerrish, "The Mirror of God's Goodness" in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Donald K. McKim, editor, pp.120-122.

18) *Inst.* II. 2.15

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런 학술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이 태만에 대한 당연한 벌을 받아야 한다.¹⁹⁾ 그러므로 “인간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훌륭한 일들에 대한 지식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²⁰⁾

2. 인간의 구조적 성질

칼빈은 개혁파의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함께 인간은 두 부분, 즉 물질적 특성을 가진 육체와 비물질적 영 혹은 혼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²¹⁾ 이것은 물론 일원론적 인간관²²⁾과 삼분론적(三分論的) 인간관(人間觀)²³⁾과는 다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혼과 영이라는 말을 동의어로 사용한다고 주장한다.²⁴⁾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혼은 인간에게 있어서 보다 고귀한 부분이다. 이 영혼은 이성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비이성적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다.²⁵⁾

칼빈에 의하면 인간의 영혼은 창조된 영적 실재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에 새겨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영혼도 천사와 마

19) *Inst.* I. 2.16

20) *Ibid.*

21) *Com. Genesis* 2:7

22) G.C. Berkouwer, *Man: The Image of God*, pp.194-233. 벨카우워는 여기서 성경이 인간을 “산 영”으로 구성하는 두 구별된 실재를 갖는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쥌인”으로서의 인간으로 본다 주장하고 있다.

23) C.I. Scofield, *The Scofield Reference Bible*, note on 1 Thessalonians 5:23. 여기서는 인간이 육체, 혼, 영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4) *Inst.* I. 15.2

25) *Inst.* I. 15. 7.

찬가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틀림없는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창조는 유입이 아니라 무로부터의 존재의 시작인 것이다.²⁶⁾ 칼빈은 마니교도들의 영혼 유출설(流出說), 즉 영혼을 하나님의 본질의 유출이라고 하는 마니교도들의 망상을 공박하고 하나님의 무(無)로부터의 창조행위를 강조한다.²⁷⁾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축도이며, 그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 감각적 세계와 영적 세계에 다같이 참여한다.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내가 아는 바로는 ‘영혼’이라는 말은 불멸적이면서도 창조함을 받은 실재를 의미하며, 이것은 인간의 보다 고귀한 부분이다. 이 말은 가끔 ‘영’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²⁸⁾

이처럼 칼빈에게 있어서 영혼은 불멸적이지만 동시에 창조된 실재이다. 영혼은 불멸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혼의 불멸은 영원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무에서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시는 것이다.

칼빈은 영혼의 특성을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한다. 즉 영혼의 불멸성, 영혼의 피조성, 그리고 영혼의 고상함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에서 이 부분 전체를 철저히 수정했으나 초기 여러 판과 다른 책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²⁹⁾

그는 영혼의 불멸성을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로 입증해 보인다. 첫째는良心이다. 양심이 선악을 가려내며, 하나님의 심판에 응

하게 된다는 사실은 곧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좋은 증거이다.³⁰⁾ 둘째는 하나님에 관한 인식 자체이다. 이것은 이 세계를 초월하는 영혼의 불멸성을 충분히 입증해준다.³¹⁾ 왜냐하면 사라져 없어지는 세력은 생명의 근원에까지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인간정신의 여러가지 고귀한 機能들이다. 이것들은 그 불멸적인 실재의 증거가 된다.³²⁾ 넷째는 수면이다. 왜냐하면 “수면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의 관념을 우리에게 암시해 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시해 주기 때문이다.”³³⁾ 다섯째는 성경의 증거이다. “자주 성경에 나타나는 그와 비슷한 구절들은 영혼을 육체와 분명히 구별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이름까지 그 영혼에 붙여서 이것이 인간성의 주요 부분이라는 것을 지시해 주고 있다.”³⁴⁾

칼빈은 다음 여러 성경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욥기 4:19; 고린도후서 5:4;5:10;7:1; 베드로후서 1:13; 베드로전서 1:9,22;2:11,25; 고린도후서 1:23;5:6,8; 히브리서12:9;13:17; 마태복음 10:28; 누가복음 12:4,5;16:22 등이다. 여섯째는 하나님의 形像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영혼불멸의 확증을 더 공고히 해준다.³⁵⁾

하나님은 육체가 죽은 후 최후 심판 때까지 인간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신다. 육신의 죽음 저편에서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며 최후심판 때까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때에는 이 영혼불멸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 그러므로 영혼의 불멸성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26) *Inst.* I. 15.5.

27) 칼빈은 여거스틴의 글을 많이 인용하였다. 특히 *City of God*. x x ii.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II. 217. 참조

28) *Inst.* I. 15.2.

29) Francois Wendel, Calvin,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p. 173.

30) *Inst.* I. 15.2

31) *Ibid.*

32) *Ibid.* cf. Tertullian, *Against Marcion* II. ix. tr. The Ante-Nicene Fathers III. 304

33) *Ibid.*

34) *Ibid.*

35) *Inst.* I. 15.2.3. cf. T.F. Torrance, *Calvin's Doctrine of Man*, p.35ff

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그리스도인 뿐이다.

칼빈은 육체와 영혼의 연합을 아무런 혼란이 없는 관계로 보고³⁶⁾ 동시에 영혼과 육체의 구별은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구별이라고 주장한다.³⁷⁾ 그리고 복음의 지극히 적은 교훈이라도 플라톤의 사상 체계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강조하고³⁸⁾ 철학자들의 영혼관은 항상 불확실하다고 하였다.³⁹⁾ <다음호에 계속>

36) *Inst.* I. 14. 1

37) *Inst.* I. 5. 5.; I. 15. 2)

38) *Com. John* 16:29

39) *Psychopannychia*, p.420.

목회사역과 성령의 역할에 대한 칼빈의 목회적 교훈들

김재성

<조직신학, 전임강사>

서론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로서 알려져 있다.¹⁾ 특히 그의 신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기독교강요」에 보면, 다음의 네 가지 주제들 속에서 성령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 I 권에서는 성경의 저자로서의 성령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성령의 내적 증거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한다. 제 II 권에서는 삼위일체 안에서 성령의 신성과 지위를 설명하고 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제삼위에 해당하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므로 만물의 창조에 참여하셨으며, 재창조의 사역을 위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마음속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신다. 제 III 권은 거의 전부가 성령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성령께서 인간의 내부에서 역

1) Benjamin B. Warfield, "John Calvin as Theologian". in *Calvin and Augustine*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56), p.487.